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3



폴리 부부가 독자에게 전하는 말씀

성경적으로, 순교는 핍박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순교는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남아 있는 사람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수 사탄이 복음에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사람들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합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증인이 생기면, 원수는 그 증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노예들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핍박이 올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저주하기보다 고난을 감수하며 기꺼이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증인인 우리에게,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핍박자들을 저주하기보다 사랑으로 자진해서 고통당할 때 완전해집니다.


이렇게 순교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순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증언'이지, 그 증언에 대하여 세상이 당연히 보이는 폭력적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 불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는 순교자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비비, 존 차오 목사, 차덕순, 이라크 제과점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독교인을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그들의 삶이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매일 어둠의 한 가운데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의 울무에 빠진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 말씀을 따른 성도들을 본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도 저주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한 성도들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향해 "보호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른 비 언약교회' 왕 이 목사님이 중국 당국을 향해 단언한 대로, "당신들은 그리스도에게 맞서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facebook.com/VOMKorea


 twitter.com/VOMKorea


 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

 vomkorea.com

 02-2065-0703

 [김교선 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공개강연 장소]
서울시 성북구 송생로 26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교황청 공식 기관지 피데스(Agenzia Fides)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호르(Lahore) 시 경찰 조사단은 파키스탄 탈레반(Tehrik-i-Taliban Pakistan)과 이들보다 더 강경한 자마툴 아흐랄(Jamaat-ul-Ahrar) 같은 테러 집단이 이미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파키스탄 대법원이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한 때부터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시아 비비는 신성모독 혐의로 2010년에 기소되어 계속 사형수로 복역해 온 기독교인 여성이다. 아시아 비비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종교 사건 중 하나이다.

아시아 비비가 석방된 후,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며 사흘 동안 항의한 탓에 파키스탄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아시아 비비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위협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현숙 풀리 대표는 설명한다. “사실, 이제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마을이 다 위협해졌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과 한 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닥친 위협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라크 국영 TV 채널 알 수마리아(AL Sumaria)는 모술 시 무슬림들이 350명이 넘는 기독교인의 주택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매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2014년에 모술 시가 IS(아랍어로 '다에쉬') 손에 넘어간 때부터 난민 수용소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알 수마리아는 무슬림들이 법률 문서를 위조하여 이 주택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본래 소유자인 기독교인들에게 집값은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이라크는 기독교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 소식은 더 비극적으로 들립니다.” 현숙 풀리 대표는 설명한다.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이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인도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는 덕분에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원을 받아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IS에게 빼앗긴 고향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적어질 거예요. 이러한 집 도둑질은 단지 니느웨 평원을 ‘탈 기독교화’(de-Christianization) 하는 과정의 다음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 VOM과 전 세계 모든 VOM이 협력하여,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과점을 나홀라 계곡 근처 한 마을에 지을 계획이라고 현숙 풀리 대표는 밝힌다. 또한 현숙 풀리 대표는 2014년에 IS가 공격했을 때, 220명가량 되는 이라크 기독교인 가족이 쿠르디스탄 고원지대 나홀라 계곡으로 도피했다고 말한다. 현재, 그들이 빵을 사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제과점까지 가는 데 3시간 소요된다. 현숙 풀리 대표는 “나홀라에 세워진 제과점은 기독교인들에게 수입원이 될 뿐 아니라, 매일 먹을 빵을 사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비기독교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전한 근거지 역할도 할 것입니다”라고 논평한다.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김교신 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숲샘로 26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MKorea twitter.com/VOMKorea 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

2019년 2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	2
					쿠웨이트 핍박받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프가니스탄 가정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언어로 모든 부족에게 그물망처럼 퍼지도록 기도해주세요.
3	4	5	6	7	8	9
부탄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튀니지 튀니지 신자들을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프가니스탄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복음에 마음을 열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집트 온갖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작은 개척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리비아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키스탄 SD 카드로 배포 중인 전도 자료들이 결실을 보도록 기도해주세요.	베트남 현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훈련을 받고 문서도 읽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0	11	12	13	14	15	16
에리트레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주세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파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부탄 토착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이지리아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의절당하고 지역 사회에서 추방당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키르기스스탄 가족이 모두 그리스도께 나오는 가정이 늘어나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인도네시아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52개 부족을 섬기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들이 담대한 열매를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북한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투옥되어 있는 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7	18	19	20	21	22	23
에티오피아 현재에도 진행 중인 포격에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국내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 카슈미르 지방 신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미얀마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최전선 사역자	인도 어린이 성경을 비롯한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필리핀 외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악지대 정글을 헤치며 험한 길을 다니는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키스탄 "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최전선 사역자
24	25	26	27	28		
이라크 이슬람에서 회심한 신자들을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소말리아 다른 신자들과 교제할 수 없는 은밀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에리트레아 국외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에리트레아 신자들과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 "모질게 압박당해도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최전선 사역자	카자흐스탄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을 등에 업은 무슬림 친척에게 핍박당하는 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꽃은 당신 발에 짓밟혀도 향기로 보답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당한 기독교인도
 자신을 고문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했다.”

순교자의 소리 창립자 리처드 워브랜드
Richard Wurmbbrand

이 달의 추천 도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새 번역

주문방법 온라인주문 vomkorea.com/shop
 전화주문 02-2065-0703



북한 - 차덕순



지하종교망을 조직한 장소

북한 선전용 영상에 따르면 차덕순은 한때 강력한 혁명 동지였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여인이 차덕순에게 와서 서북쪽으로 가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인은 "당신이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었다.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차덕순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 자신의 삼촌이 중국에 살았다는 사실이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녀의 삼촌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혼자 몸으로 중국에서 갓은 고생을 하던 차덕순은 우연히 서탑 교회를 보고 그곳에 들어갔다. 교회에서 들은 복음 메시지는 차덕순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선전 영상에 의하면, 차덕순은 광신도가 되었고 북한에 돌아가 북한 내 신도들로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부추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북한에 돌아갔을 때, 차덕순은 불법으로 중국에 갔던 일을 정부 당국에 자수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었다. 그러나 차덕순은 정부에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주님을 찬양했다.

차덕순은 빈곤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북한 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닐 수 있는 통행 허가증을 받았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덕순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갓은 애를 썼다. 선전 영상에 따르면 차덕순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에게 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집안 자손들을 찾아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영상은 이 지하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심지어 가장 바쁜 농사철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공부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차덕순은 '각성한 훌륭한 군중'의 신고로 적발되고 말았다.



중국과 미얀마 - 존 차오



(2018년 12월 5일, 윈난성 푸얼) 중국 윈난성 사법 관리들은 본래 이번 달로 예정되었던 존 차오(John Cao) 목사의 항소심을 내년 1월 22일로 연기했다. 존 차오는 미얀마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2017년에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중국인 목사이다.

2012년, 차오 목사는 핍박받는 기독교인 소수 민족 카친(Kachin) 족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과 미얀마 국경을 처음 넘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차오 목사의 부인 제이미 파월(Jamie Powell)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남편은 카친 족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이들은 옷이 없었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학교는 돼지우리 근처에 임시변통으로 세워져 있었죠."



차오 목사는 2012년에 미얀마를 방문하기 전, 중국에 학교 두 곳을 설립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차오 목사는 그 학교들을 정부가 소유하여 운영하도록 넘겼다. 차오 목사는 2012년부터 미얀마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학교 16곳을 세웠고, 그 학교에서 가난한 소수 부족 어린이 2천 명 이상을 돌봤다. 이 시기에만 해도 차오 목사가 중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17년 3월 5일, 갑자기 체포되어 '불법 국경 횡단' 혐의로 기소되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이 차오 목사 같은 기독교인 죄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은 '감옥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때는 교도소 관리들이 죄수에게 편지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기독교인 죄수들을 위한 편지가 감옥에 빗발치면, 교도소 관리들이나 정부 당국자 모두 그 점을 신경 쓰고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숙 폴리 대표는 차오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자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한다. "차오 목사님은 영어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중국어나 영어로 편지를 쓰면 됩니다. 쓸 말이 없는 분은 아래 제시한 대로 영어나 한글 편지를 그대로 적어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받는 이: Pastor John Cao

주소: The Detention Center of Menglian County, Pu'er City, Yunan province, China 665800

저는 목사님의 믿음에 관하여 들었을 때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께 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허락받으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I gave thanks for you when I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I pray the eyes, ears and hearts of those who persecute you may open to Jesus. Philippians 1:29 For to you it has been granted on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i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s sake. Romans 8:18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听到你在基督耶稣里的信心，我为你献上感恩。我们祷告那些逼迫你们的人的心眼能够向耶稣打开。腓1:29 因为你们蒙恩，不但得以信服基督，并要为他受苦。我想，现在的苦楚若比起将来要显于我们的荣耀，就不足介意了。罗8:18

www.vomkorea.com에서 같은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손에 조선어로 기록된 성경을 줘주세요.

실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손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 손에 톱과 도끼를 쥐여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북한 노동자,
인신매매로 팔려간 북한 여성, 북한 고아,
남한 교도소에 갇힌 탈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조선어로 기록된 성경을 전달해온 순교자의 소리는
이 사역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선어성경-주고읽기 운동을 통해 받으신 조선어 스테디 성경을 1독하면서, 다른 한 권을 받을 북한 주민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조선어 성경 주고 읽기> 참여 안내



선택 1. 조선어 스테디 성경
신구약 합본(2016)

선택 2. 조선어 스테디 성경 (큰글자)
신구약 합본(2017)

1. 한국VOM 후원사이트 rebran.d.ly/support-vomk에 접속하세요.
2. 조선어 스테디 성경을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3. 납부 유형을 조선어 성경 주고 읽기 운동으로 선택하세요. (납부유형을 정확하게 선택 해주세요)
4. 조선어 스테디 성경 2권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선택1) 5만원(조선어 스테디 성경 - 기본) 혹은 선택2) 6만원(조선어 스테디 성경 - 큰글자)
5. 조선어 스테디 성경 한 권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다른 한 권은 순교자의 소리 현장 사역자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성경책, MP3, SD카드, USB)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합니다.

조선어 스테디 성경 본문 출처

조선어 성경은 원래 북한 정부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 지시하여 제작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1977년에 북한이 대한성서공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공동번역(평양식)'과 1959년에 '한국성서공회연합'이 레오남성에서 발행한 '조선족 성경'의 본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학자들은 이 본문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다고 동의합니다.

안내 : 02-2065-0703 (평일 화~토 09:00 ~ 18:00 일요일, 평요일 휴무)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